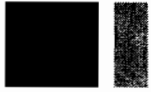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질의·응답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목 차

1. 농협연합회는 현행 농협중앙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
2. 개편이후에도 지역조합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하는가, 재원조달 방법(pipe line)은 있나?
3. 상호금융대표체제의 독립성 보장방안은?
4. 축산부문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은?
5. 부족 자본금의 규모·조달방법·시기·지원대상은 결정되었나?
6. 사업구조개편 시기와 절차는?

1. 농협연합회는 현행 농협중앙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

- 농협중앙회를 승계하는 농협연합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감사 및 농정활동과 경제·금융지주를 소유·지배하고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역할로 기능 조정
 - 현 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교육·지도·감사 등 비수익사업과 신용, 공제 및 유통 사업 등 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경영의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제·신용 등 부문별 수익사업이 자회사 체제로 전환되며,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 현재 중앙회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용사업·공제사업 부문과 5개 분사가 농협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유통·판매회사 등 자회사 체제로 변경
 - 생산자조직 규모화 및 산지 유통구조 개선 등 일부 자회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비수익 경제사업은 연합회에서 직접 수행
 - * (예시) 현 양곡부 사업 중 벼 판매사업은 쌀 판매회사를 신설하여 수행하되, 벼 매입 자금지원은 연합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에 위탁하여 관리
- 지금까지 중앙회에서 수행하던 사업적 기능은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농협연합회는 지주회사의 경영목표 설정 및 경영성과 평가 등 투자자로서의 역할 수행
 - 경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경제지주·자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범위 조정 및 경영참여 등 연합회 관여
 - * 금융부문은 경제부문보다 투명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2. 개편이후에도 지역조합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하는가? 재원조달 방법(pipe line)은 있나?

-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변경하고 조합,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임
 - 현행 4개 사업부문 → 2개 사업부문으로 축소 슬림화
 - * 전무·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 체제를 전무, 상호금융대표 체제로 개편
 - 교육, 지도, 산지 유통개선 및 경영 컨설팅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 사업(현 교육·지원사업)은 현행과 같이 계속 수행하게 될 것임

- 다만, 현행 교육·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는 재검토
 -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보조는 조합의 영세성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 → 지원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

- 일선조합에 대한 지원자금의 재원은 NH경제(일반지주회사)와 NH금융(금융지주회사)으로부터의 출자배당, 자회사에 부과할 브랜드사용료 등
 - 지주회사(자회사)에 대한 출자 배당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기 때문에 교육, 지도, 산지 유통개선, 경영 컨설팅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회원조합에 배당으로 환원)
 - * 중앙회는 2008년의 경우 3,116억원의 교육·지원사업 비용과 1,313억원의 경제사업 적자를 신용부문 수익금으로 보전
 - 현재 수준의 교육·지도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4~5천억원 수준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협연합회가 자회사에 대하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브랜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농협법에 근거 마련
(→ 교육·지원 및 비수익 경제사업 추진)
 - * 농협중앙회 신용부문 영업수익 : ('08) 24.8조원 → ('12) 20.9 → ('15) 26.1

3. 상호금융대표체제의 독립성 보장방안은?

-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조합 상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금융 지원기능 강화 및 독립 사업부제로 운영
 - 현 상호금융총본부를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확대·개편
 - * 집행간부(상호금융총본부장) → 대표이사(상호금융대표이사)
-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무이사 소관 업무와 자본·인사·회계를 분리하여 독립사업부제 운영
 - 상호금융대표이사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대표권 및 인사권 부여
 - 운용부문은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운영내역 및 수익 공개, 성과에 따른 보상 등 동종 금융기관 수준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
- 전문·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내 “상호금융소이사회제” 운영
-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상호금융특별회계 내에 자본금계정을 설치하고, 자본금 확보를 통해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제고
 - 자본계정을 설치하여 내부 출자금, 이익금, 잉여금을 자체 적립
- 단계적으로, 중앙회에서 ‘상호금융’을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농협법 부칙에 관련 규정을 명시
 - 농식품부는 농협상호금융 독립법인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법시행후 2년이내)하고, 농협연합회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연구용역 완료 후 1년이내)토록 하고, 이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농식품부가 확정

4. 축산부문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은?

- 2000년 농·축협 통합 정신을 살려, 금번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 현행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각각 농업 및 축산담당 이사체제로 전환하고, 축산부문 상임이사는 농협연합회와 경제지주(축산부문)간 업무 조율, 지주·자회사 수익에서 조달된 자원 배분 역할 등을 담당
 - 연합회내의 전무이사 소관회계에서 별도의 축산경제 계정 설치
 - * 전무이사는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경·축경부문 사업 총괄·조정기능 수행
 - NH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외에 농·축경부문 부대표를 두어 부분별 자회사 관리·평가, 발전전략 수립 및 조정기능을 수행토록하고, 부대표별 조합장 대표회의를 두어 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간 업무협조로 사업효율성 제고
 - 축산담당이사와 NH경제지주회사의 축산경제부대표 후보자를 농협연합회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되, 위원회 구성시 7인의 위원 중 축산조합장 4명을 참여토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
 - * 현재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들로 구성된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선출

5. 부족 자본금의 규모 · 조달방법 · 시기 · 지원대상은 결정되었나?

- 정부가 농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출자, 출연, 보조, 융자 등의 방안이 있으나, 어느 방식으로 지원할 지는 사업구조 개편 목적 및 지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농협법 통과 후 중앙회의 자산실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
 - 지원 규모 및 대상도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사업의 수익성 제고 등 사업구조 개편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 자산실사, 투자계획 수립 등을 거쳐 필요 자본금을 산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자체 조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
- 지원 대상(연합회 or 경제지주 or 금융지주)은 협동조합의 정체성 ·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 예정

<※ 필요 자본금 등 추정>

단위 : 조원

구분	자본금(A) (‘09기준)	필요 자본금					부족자본금 (B-A)
		계(B)	경제	신용	교육 지원	상호 금융	
농협개혁 위원회안	12.2	18.2	5.3	12.1	-	0.8	6.0
중앙회안	13.8	23.4	7.1 <small>농경5.4, 축경1.7</small>	15.2	1.1		9.6
농협경제 연구소안	12.2	17.0	2.6	13.4	1.0		4.8

6. 사업구조개편 시기와 절차는?

- 사업구조개편의 추진 일정은 농협법 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농협법 개정이 2010년 초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2011년 중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정되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사업구조개편 추진기구가 설치되어 자산실사, 자본배분 및 투자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농협법 개정 이후 자산 실사·재평가, 조직 설계, 인력 배치 등 준비 작업에 1년 내외 소요 예상